

제21편 - 제3신앙촌시대(마지막)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86회)

제21편

제3신앙촌시대 마지막

一. 삼천년성(三千年城)

二. 삼신양촌과 삼천년성

三. 회복된 하나님 나라 삼천년성

1) 구세주가 출현한 나라 대한민국

2) 구세주가 발하는 빛이 온 우주를 밝힌다

3) 동방에서는 구세주의 영광을 서방에서는 구세주의 이름을 경외(敬畏)한다

4) 열방의 재물이 다 구세주에게로 온다

5) 구세주 섬기지 않는 나라는 파멸(滅)한다

6) 영원한 천국 삼천년성인 하나님의 나라

7) 회복(回復)된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首都)가 소사(素沙)에 세워진다

三. 회복된 하나님 나라 삼천년성

지금까지는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 불경과 격암유록에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소개해 보겠다.

불경)

“아미타불이 대 광명을 놓아서 서방세계를 다 비추니 수많은 하늘과 땅과 수많은 해와 달 등이 다 빛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부처의 광명만이 더욱 드러나거늘 (불경 수능엄경 4권28쪽)”

격암유록)

日光晝更無月光之極 七日光寶石照
일광주경무월광지구 칠일색보석조
列邦望色福地來 更無月虧不夜光明
열방망색복지래 갠무월휴불야광명
(來貝豫言六十一歲)

“햇빛이 비추는 낮만 있고 다시는 달빛이 필요없는 세상이다. 일곱색깔의 빛을 발하는 보석처럼 빛나네. 세계 열방이 그 빛을 바라보고 복된 이 땅을 찾아오며 다시는 달의 이즈러짐이 없고 밤이 없는 광명의 세계이다.”

격암유록에도 낮만 있고 다시는 달빛이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구세주 정도령

미륵불이 발하시는 빛으로 온 천하가 밝게 비추어지게 된다는 말씀이다. 열방이 7색으로 발하는 보석같은 빛을 향하여 속속 한국으로 찾아온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모든 완성의 원리는 하나라는 것이 밝혀지니 참으로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모든 유불선의 원리는 하나로 통일되어 구세주, 정도령, 미륵불이신 조희성님을 통하여 완성이 되고만다.

3) 동방에서는 구세주의 영광을 서방에서는 구세주의 이름을 경외(敬畏)한다

삼천년성 에덴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주인공이 계시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서의 서로 상반된 현상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서방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해돋는 곳에서는 그의 영광을 경외하리니(사59:15)”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일까?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질 때에는 구세주의 존재가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이다. 이때에는 감사하게도 구세주가 출현한 해돋는 곳 즉 동방에 속한 한국사람들은 구세주님의 영광 속에 직접 동참해서 축복 속에 거하게 될 것이지만 구세주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서방의 서양 사람들은 멀리서 구세주님의 이름만 머리 속에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며 경외할 것이란 예언이다.

이 성경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세주 출현하신 한국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새삼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

4) 열방의 재물이 다 구세주에게로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는 주인공 구세주가 계시는 곳이 우주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전세계 열방이 구세주 계시는 한국으로 황금보화를 신고 조공을 바치러 몰려온다고 하였다.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모여 다 네게로 오느니라.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발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아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왕들을 이끌어 옴이라(사60:4-5, 60:11)”

전세계 기독교인들은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2600여년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성경은 유대인이 쓴 것이니 이 예언 말씀도 막연히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세주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 중에서 출현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은 당연히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세계 열방의 왕

들이 금은보화를 신고 구세주 정도령님이 계시는 한국으로 온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진경(眞經)이 있다. 바로 남사고 선생의 유록이다.

遠邦千里運糧日 寶貨萬物自然來 豫言
원방천리운량일 보화만물자연래 예언
不遠朝鮮矣...歌謠雜
불원조선의 가사요

“원방천리 먼 곳에서 금은보화 산해진미를 신고 온다는 이 예언이 멀지 않은 장래에 조선 즉 한국에서 이루어진다”

남사고 선생은 열방이 재물을 신고 구세주 계시는 나라로 온다고 성경에도 비결서에도 다 써어 있는데 이와같은 예언은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다.

그뿐이 아니고 열국왕들이 금은보화를 신고 들어오는 항구까지도 예언해 놓았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漸近海運盡善甘來 海洋豐富近來로다.
점근해운고진감래 해양풍부근래
千里萬里遠邦船이 夜泊千艘 仁富來라.
천리만리원방선 이박천소 인부래
(海運雜歌 해운개가)

“점차 다가오는 가까운 날에 크고 넓은 바다의 운이 열려 고생은 끝이 나고 즐거움이 온다. 해양의 풍부함이 가까이 오니 천리만리 떨어진 먼 원방에서 천척의 배들이 아박을 하기 위하여 인천과 부천지간으로 몰려온다.”

점점 다가오는 가까운 날에 고생은 끝이 나고 즐거움만이 오는데 천리만리 원방에서 천척의 배들이 아박을 하기 위하여 인천과 부천 사이에 있는 항구로 몰려온다고 한 것이다. 지금 인부지간에 ‘대부도’, ‘제부도’, “오이도”라는 항구가 건설되어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或悲或喜 仁富之間 夜泊千艘 和氣東風
혹비혹희 인부지간 이박천소 화기동풍
萬邦和...末運論
만방화 말운론

“혹은 슬프고 혹은 희색이 만면하여 기쁨이 넘치겠는데 인천과 부천으로 몰려와 아박을 하는 배가 천소에 이른다. 화사로운 동풍에 세계 만방이 평화롭겠구나”

인천과 부천 사이에 있는 부두로 1000척의 배가 금은보화를 신고 몰려오는데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게 된다. 이것은 구세주 정도령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차이에서 슬퍼하며 통곡을 하는가 하면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때는 가슴을 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발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사60:5)”

구세주계서도 이 광경에 너무 기뻐서 희색을 발하신다고 하였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구세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역사하던 무리들은 참으로 기가 막힌 때가 될 것이다.

이와같이 배들이 신고 들어온 황금과 보화들은 마음껏 쓰고도 남는 것을 수원, 서울, 개성으로 이어지는 곳에 보물 창고를 지어서 쌓아 놓는다고 하였다.

弓聖山無祈不通 金銀寶貨用剩餘
궁성산무기불통 금은보화용잉어
(來貝豫言六十一歲때예언육십일세)

“궁을십승 구세주가 계시는 성산은 기도없이 통하지 않는 곳ियो, 금은보화는 쓰고도 남는구나”

十二帝國期貢일세 華城鄕島松京까지
십이제국조공 화성향양송경
寶物倉庫서였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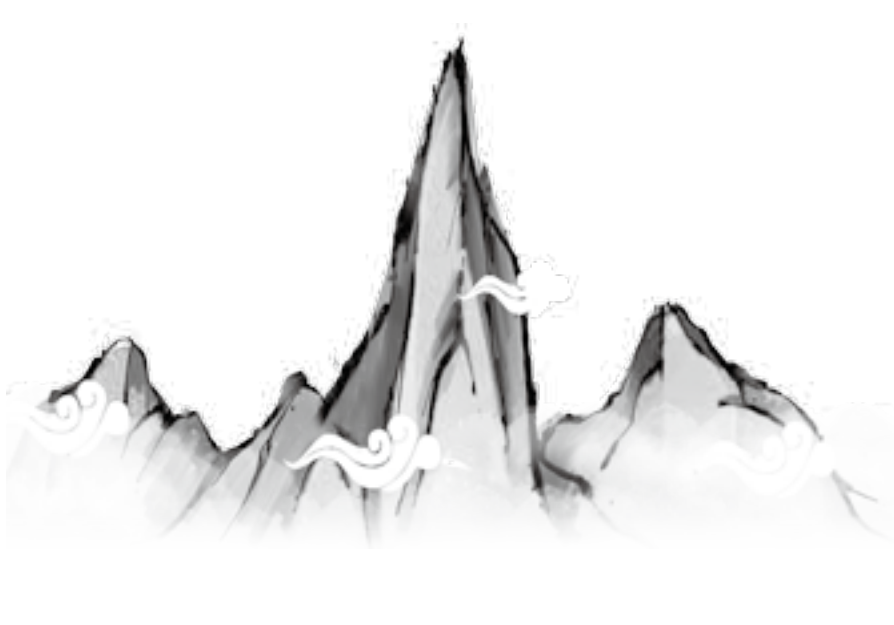
보물창고

造築金剛石彫城은 夜光珠로 端裝하니
조출금강석조성 야광주 단장
鷄籠金城燦爛하여 日無光이 無晝夜를
계룡금성찬란 일무광 무주야
(桃符神人 도부신인)

“세계 열방이 조공을 바치려고 몰려오는데 화성(수원)에서 한양(서울), 송경(개성)에 이르기까지 보물이 창고에 쌓였는데 금강석으로 조각을 하여 성을 쌓고 야광주로 단장을 하였으며 계룡(鷄籠)인 한국에서 금성(金城) 즉 금운(金運)으로 오시는 구세주의 발하는 빛이 너무나 찬란하여 해가 빛을 잃고 낮과 밤이 없구나”*

다음호에 계속

운이 오고가는 이때에 중입(中入)에 들지 못하면 복이 없어 죽으리니 가련하구나



不入中動無福者 불입중동무복자로
未及以死可憐 미급이시기려구나

유불선이 합일한 황극(皇極)의 선운(仙運)에는 고달픔과 슬픈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어지니 늙어 병들고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마침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 세상(선운)에도 있겠는가? 황극 선운이란 황제 즉 천자의 법도(하나님의 자유율법)로 다스려지는 신선 세계의 운을 말한다. 여성남하(女上男下)의 계몽(장녀장남=풍뢰의괘)운에는 남녀조화가 같이 일어나니 이는 화우로 삼풍해인을 용사(用事)하는 아미타불이 오셨음이라. 새 시대의 불도 창성은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새로운 운에 이어 운이 또 열리고 다시 새로운 운이 열리니 선천 후천 지나가고 중천이 오는 것이 그것이니라.

중천에 오시는 이분은 만병을 다 고쳐 다시 젊어지게 하니 이분이 해인대사요 병이 골수에 박힌 무도자를 불사영생 시키려고 하도낙서의 이기(理氣)의 기묘한 해인묘법을 만세 전에 미리 정하여 숨겨오다가 동서 각국을 제외하고 예의 동방 무궁화 나라의 자하도로 건너와서 남 조선을 택하여 박활(朴活)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물려주느니라. 박활이 하나님의

자리를 물려받아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보물(불사영생의 보물인 삼풍해인)을 전해주건만 버리지 같은 인생들은 이를 알지도 못하면서 거만하고 방자하며 시기하고 교만하며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좁은 지식과 식견으로 좌우를 돌아보지도 않는 채 스스로를 기만함으로써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안개 속을 방황하듯 참된 길을 찾지 못하느니라. 그런 중에 천지는 순환 왕래하여 지귀(地鬼)의 운이 가고 천신(天神)의 운이 와서 중천운을 맞는 종말 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은 중입(中入)에 들어가지 못하여 무복자(無福者)가 되어 불사영생의 마지막 관문에 이르지도 못하여 죽게 되니 참으로 가련하구나!

海印三豐不覺 해인삼풍불각하고
十勝弓乙獲得 십승궁을획득하야
須從白兔走靑林 수종백토주청림은
西氣東來仙運 서기동래선운비더
滿七加三避亂處 만칠기삼피란처로
鷄籠白石傳 계룡백석전했으나
先後到着祝文法 선후도착비문법
隱頭藏尾混雜 은두장미혼난하야
迭序判斷不覺故 질서판단불각고로
日去月諸不顧 일거월제불고로다
泛濫者 범람자는 無味무미하고
深索者심삭자는 有味유유미고로
天藏地祕文祕法 천장지비문비법이
日月量解일월량해되고보니
靈岩中 영대중에 有十勝유십승을
捨近就遠 사근취원하엇구나

리를 숨기어 혼란스럽게 기록하여 질서판단을 깨닫지 못하게 한 고로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아예 돌아보지도 않게 되느니라.

해인삼풍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서 십승 궁을의 진리를 어떻게 알겠는가? 모름지기 백토(白兔=서기동래)를 따라 청림도사(정도령 81국)에게로 달려가야 하나니 서기동래(금목합일금목승)한 정도령은 중천운이 되는 신선의 운을 받았으니 십승(十勝=마귀를 이기신 하나름)을 피난하는 의지처로 삼아야 할 것이며 십승 하나름을 모신 정도령이 백석(白石=素砂)에 계시면서 불사영생의 진리를 가르친다고 전했으나 비문법(秘文法)이 글의 선후(先後)가 뒤바뀌고 머리를 감추고 꼬

그러므로 제 분수와 그릇이 작아 이 비문법이 자신에게 너무 벽찬 자는 글의 참 뜻을 깊이 파 볼 능력과 의지가 약해서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고 비문을 깊이깊이 탐구한 자는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고로 천지에서 감추고 숨긴 비문법을 밝게 헤아리고 깨닫게 되어 마음속에 십승 하나름이 계신 것을 모르고 멀리 바깥세계에서 찾으려 하였던 것을 알게 되느니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